

무등산 아래 문화벨트

전통문화관·우제길미술관 등 6개 기관 협약
증심사 일대 문화 프로그램 개발·진행하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등으로 무등산 증심사 일대가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는 광주문화재단의 전통문화관을 비롯 해 무등현대미술관과 우제길미술관 등 문화 시설들이 몰려 있다.

이들 문화기관들이 손을 잡고 증심사 일대에서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무등산권 6개 문화 유관기관이 자연·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자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문화재단(대표 서영진),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철),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영석),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승규), 우제길미술관(관장 김차순), 한국제다(대표 서민수) 등 6개 기관은 지난 16일 오후 2시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무등산권문화협회의'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곳에는 무등산국립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생태환경을 간직하고 있고, 미술관 거리가 조성돼 있다. 또 광주 무형문화재 전승 및 전통문화 체험 공간인 전통문화관, 60여 년간 한국 전통차 문화를 일궈온 한국제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공간은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자연·문

화·예술 벨트로 손꼽힌다.

무등산권문화협회의 구성으로 증심사 윤림동 일대의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전통문화관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은 지난해 말부터 인근 기관들과의 예비모임을 진행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가칭)윤림동문화네트워크 모임'을 꾸렸다.

6개 기관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무등산권 자연·문화·예술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 ▲각 기관이 보유한 자연·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정보 공유 ▲자연·문화·예술 체험 코스 등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등을 수행한다.

올 하반기부터 전통문화(광주문화재단), 지역미술(국윤미술관), 자연·생태(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현대미술(무등현대미술관), 추상미술(우제길미술관), 다도(한국제다) 등 각 기관의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투어형 체험 등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 리플렛 제작, 6개 기관 스탬프 릴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광주의 명품 생태·문화관광 1번지로 가꿔나간다. 문의 062-232-159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2014 국고지원 시각예술 평가 '전국 2위'

전시 연출·예술성 '호평' 관람객 확보 대책 '시급'

보고서, 잇따른 서구권 감독 참여 亞 특수성 못살려
재단 "당장은 재정 자립 어려워...정부 지원 있어야"

지난해 열린 '2014광주비엔날레'가 '2012광주비엔날레'에 비해 명확하고 풍부한 전시 주제 개발 및 독특한 전시 연출, 제3세계 작가들의 참여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관람객은 22%나 줄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최근 펴낸 '2014 국고지원 시각예술분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4광주비엔날레'는 83.6점으로 지난해 열린 시각예술 행사 중 두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2012광주비엔날레' 보다 3.6점 높은 것으로, 등급도 '적합'에서 '우수'로 한단계 높아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열린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대구시진비엔날레,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장원조각비엔날레 등 5개 행사를 평가한 결과다. 평가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적합'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등급이 구분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행사는 88.2를 기록한 '2014대구시진비엔날레'였고, '2014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79.3), '2014장원조각비엔날레'(76.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부산비엔날레'는

69.4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광주비엔날레는 '서비스제공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 '전시행사 기획 및 운영' '예술적 독창성' 등이 80점대 후반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전시 주제(터전을불태우라) 및 내용이 관객 친화적이면서도 전반적으로 예술적 완성도가 높았고, 신작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전시 기획 및 구성이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터전을 왜 불태워야 하는지, 그 터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 정치, 문화적인 정의 없이 불이나 연기와 같은 시각적인 연출이나 장치에 지나치게 의존해 비평적 논쟁이나 다양한 담론을 논의할 터전을 생성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쿠이 엔위저,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제시카 모건 등 해외 유명 큐레이터를 영입해 명실상부 국제 비엔날레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면서도 "이들 서구권 감독들의 참여가 개국인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및 지역사회의 미술진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지적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아시아권 비엔날레의 특수성과 지역문화적인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

고 있다는 의미다.

2014광주비엔날레는 '관람객 확보 및 참여'에서 최하점(52.8)을 받았다.

실제 지난 2010년 32만7981명(유료 29만4290명, 무료 3만3691명), 2012년 22만8428명(19만3371명, 3만5057명)이던 관람객은 지난해 17만6922명(14만8726명, 2만8196명)으로 급감했다.

보고서는 급감하고 있는 유료 관람객 수를 늘리고 점차 축소되는 비엔날레 지원 예산을 대비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진행된 '나도 비엔날레 작가' '아트마켓' 등 시민참여형 부대행사들이 본 전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대부분 단순한 이벤트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그동안 아시아권 작가 참여가 적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시아권에만 집중하는 것은 국제비엔날레를 지향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아시아의 색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미술 축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당장의 재정 자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며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면서 재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나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신대 '한음회' 정기연주회
내일 금호아트홀

호남신학대 한정숙 교수 제자들의 모임인 '한음회'(회장 김지현) 정기연주회가 1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8회째 맞는 이번 연주회에서 이가영씨는 베토벤의 '소나타 26번' '고별'을 들려주며 김나실씨는 멘델스존의 '론도 카프리치오스 작품 14'를 선사한다. 또 정주희씨는 슈만의 '빈 사육제의 여릿광대'를 연주한다.

마지막 곡은 엄삼미·최홍선·문은진·김지현씨가 함께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작품 71'이다. 관현악 발레 음악으로 유명한 이 작품 가운데 '러시안 댄스-사탕 요정의 춤', '리드의 춤', '꽃의 왈츠' 등을 들려준다. 문의 010-9434-1319. /김미은기자 mekim@

젊은 국악인과 한무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내일 광주문화회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김광복)이 젊은 국악인들과 한무대에 선다.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관현악단은 국악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개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했다.

'청년시대'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손은선(전남대 국악과)씨의 거문고 협연 '달무리'가 연주되며 황지영(전북대 국악과)씨가 해금 협주곡 '공수반이'를 협연한다. 또 조환희(전남대 국악과)씨의 가야금 협주 '아리랑', 배고운(숙명여대 전통문화예술대학원)씨의 해금 협주 '상생'이 이어진다. 마지막 곡은 김윤미(부산대 예술대학원)씨의 25현 가야금협주곡 '빛노래'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학생 50% 할인. 문의 03-613-824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노란 민들레 깜짝 놀라고' 펴내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회장 서향숙)가 발간하는 동인지 '노란 민들레 깜짝 놀라고'(한림)가 나왔다.

26호 짝을 맞는 작품집에는 동시와 동화작가 44명 회원들이 집필한 작품이 실려 있다. 또한 화보로 보는 아동문학인들의 활동상과 제14회 광주전남초등학교·학부모 백일장 당선작품 등이 수록돼 있다.

아동문학인회는 아동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동인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월 1회씩 세미나를 개최해 동인들의 진목도모와 창작 활동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학생·학부모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해 글쓰기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신



진작가 등용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서향숙 회장은 발간사에서 "광주전남 아동문학인회라는 어린 나무가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도 이겨내고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커다란 아름드리나무로 자랐다"며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어주고 축축한 비가 알맞게 내려서 어린 나무를 잘 자라도록 도와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



'2014광주비엔날레'가 전시 기획, 주제 선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급감한 관람객 증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해 전시된 에드워드 킨홀츠&벤시 레인 킨홀츠 작 '오지만디아스 퍼레이드'. <광주일보 자료사진>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가구 **명품소파** **던롭침대** **가구빌딩**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